

타이완, 중국산 시멘트 반덤핑 규제

타이완이 중국산 수입 시멘트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타이완 재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시멘트에 대해 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30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5년간 부과한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타입 I, 타입II, 클링커 등이다.

타이완이 중국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건, 신발,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나트륨 포름알데히드(Sodium Formaldehyde)에 이어 5번째로 알려졌다.

타이완 재정부는 “중국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0>